

〈지난주 말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삽니까? 그렇다면 나를 왜 오늘 살려두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답을 내야 합니다. 나는 전도자, 제자, 절대망대다, 나는 237나라 5000종족 세계복음화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계획되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았다면 나는 어떤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불잡아야 할 7가지 포인트입니다. 남은 자인 줄 알았더니 나는 남겨둔 자이구나. 나는 여정을 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순례자이구나. 내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정복자구나. 그리고 내 눈을 열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러져 있는데, 흘러져 있는 게 아니고 파송된 자구나. 말 그대로 어디를 가도 살리는 파수꾼이구나. 후대 재앙을 막는 정탐꾼이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를 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인생에 이런 이면계약을 가지고 가야 하겠구나.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 성공, 잘먹고 잘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는 것입니다. 진짜 어리석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를 쥐고 장악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관점에서. 과거 사건이 오늘의 비밀이 되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세 전이 영원한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비밀이 바로 계시록 12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뭐지? 하고 처음에는 고민했습니다. 아, 이게 과거 오늘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복음의 비밀이구나. 계시록 12장은 영원 전의 복음이 현재의 복음으로, 미래의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세상 나라가 끝나면 왕권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사는 것 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누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 영세 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 재림주로 서실 분, 심판주로 서실 분,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비밀, 해방의 비밀, 참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 사탄의 권세를 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 갈 수 밖에 없는 지옥 배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5:39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책으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6권이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가 쓴 책인데 이게 전서로 합쳐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책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4 뮤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19:30에서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자기 생명, 자기 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생 문제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면 내게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답난 자에게 준 것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237나라 5000종족이 내게 있단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그게 천명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소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인생의 사명이 보입니다.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갈2:20은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나는 죽었다. 우리는 이 죽었다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 아닙니다, 죽어야 합니다. 벤전2:9 이 사람에게 어둠에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빛을 선전하는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여정, 절대망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나의 절대망대를 세운 사람은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본론〉

1.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다

▶이 12장은 과거, 현재, 미래로 보셔야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웃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계12:1) 이 이적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이적이 과거적인 이적입니다. 현재적인 이적인데 영원한 미래적인 이적으로 보여진단 사실입니다. 해를 웃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과거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할 그 분을 임신한 여인입니다. 현재로 보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계12:2)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임신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계12:3)

다른 한편으로는 큰 용이 보입니다. 붉은 용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고 일곱 왕관을 썼습니다. 이놈이 어떤 존재냐 하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기름부음받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름부음받은 존재인데, 놀랍게도 가짜입니다. 기름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로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주의 왕권 앞에서는 안된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관을 쓰고 왕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계12:4)

용이 여인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과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현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계12:5)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탄생입니다. 이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현재 시제로 봐야 합니다. 이 아이가 보좌로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해주세요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 탄생이 아니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철장권세는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가둘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큰 용을 가둘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계12:6)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이백육십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3년 공생애입니다.

2. 하늘에 전쟁이 났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계12:7)

과거 시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권세를 가지고 이 아이가 오는 시점에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과거 시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몸에 들어와서 잉태되어서 지내고 양육되는 3년 반 동안의 시기에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았느냐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합니다. 천사 삼분의 일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고 악한 영이 된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자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12:8-9)

이들이 전쟁을 이기지 못해서 내어쫓깁니다. 이게 타락 천사입니다. 이 내쫓기는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계획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존재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인간이 있는 곳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점으로 보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 오시는 시점에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었구나. 그걸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 쫓겨난 붉은 용이 옛 뱀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사실 인간을 망가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놈을 그냥 둘 수 없어 절장권세를 가진 아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메시지를 암축하고 암축해서 우리에게 주는 초암축의 메시지입니다.

▶꾀는 자, 이 말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가엘과 사웠던 출가들입니다. 용과 함께했던 존재들도 같이 쫓겨난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영원한 미래시제로 보여야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계12:10)

이걸 현재시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큰 용이 내어쫓겨서 온 천하를 꾀고 있는데, 이 자를 절장에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절장에 가두는 그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계의 질서를 마무리하는 시간표가 왔다는 것입니다. 혼탁해진 영계의 질서를 그리스도의 권세로 바로잡는 시간표입니다. 이 때를 기다리면서 아, 이 때는 사탄이 끝나는 시간표가 오는구나. 저 영원한 지옥의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오는구나. 이 존재를 따라가는 자들은 무저갱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보지 말고 자세히 보란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지옥갈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참소하는 존

재입니다. 이 집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못된 짓 합니다, 괴목사는 이렇게 한주를 삽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존재요 요놈이. 그런데 싸움을 통해 요놈이 쫓겨나버렸어. 이걸 현재시제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놈을 지금 결박하고 끊을 수 있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 참소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24 참소하는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놈들이 뭘로 참소할까요? 세상의 기준,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참소하는 자를 어린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12:11)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구별되는 날이 옵니다. 선과 악,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와 사탄,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분리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3.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계12:12)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도,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즐거워하라. 이 말은 성령의 실제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는 사람은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끝이 안 보일 때 답답한 것이지, 끝이 보이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계12:13)

이게 바로 3년 공생애 때 일어난 박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복음 아닌 율법으로 박해했던 행동들입니다. 이게 전부 마귀 장난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전부 마귀 심부름하는 자들이구나. 그게 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날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매(계12:14)

여자가 뱀의 날을 피하여 광야로 날아갔습니다. 사탄의 날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앞서 말한 천이 백육십일을 말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 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계12:15)

이 말은 뭡니까? 뱀이 복음을 방해하는데, 완전히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계12:16-17)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다 움직였다는 말이죠. 현재 시제로 보시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남은 자로서 이 놈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시제로 볼 때 저와 여러분입니다. 미래 시제로 볼 때는 지구 종말 때 남은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과거 시제, 오늘 시제, 미래 시제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 왔구나,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져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다 망하는 거요.

▶차라리 종교생활할 바에는 그냥 막 살아요. 뒷땀에 교회 다니면서 안된다고 하며 삽니까? 차라리 불신자로 살란 것입니다. 대학 제자라는 아이들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똥오줌을 못 가려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용이 여자에게 돌아가서 복음 가진 자들을 넘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순교로,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남은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세력,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 확신 붙잡고 우리는 한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 그리스도입니다.

〈결론〉

▶마지막에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과거시제로 보면 이 전쟁은 이미 일어났고, 현재시제로 보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래시제로 보면 별의별 난리가 일어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신분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 배경은 보좌입니다. 오늘 이걸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 οὐα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